

- 2011年度 豫算(案) · 基金運用計劃(案) -

제안설명서

2010年 12月 8日(水)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존경하는 함 중 국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과 도민 행복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 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회복의 불투명으로 거래세 중심의 도세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만, 다행히 정부예산 증가 영향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여 일반회계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도와 시군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용자해 주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시군에서 지방채를 조기상환 함으로써, 내년도 상환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도 전체예산 총 규모면에서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행복한 강원도」의 도정목표 실현에 최우선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 강원도형 복지모델 정립, 교육 투자확대 등 민선 5기 「도정 핵심과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정 필수경비 등은 실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주요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규모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 자원배분이 되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축제·행사성경비 등은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 하였고,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도 한도기준액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도지사 업무추진비 30%를 감액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 편성에 노력하였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대폭 축소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의 초석을 다지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아래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3조 3,325억원) 보다 0.2%(▲ 74억원) 감소한 3조 3,251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조 9,1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07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7,203억원으로 금년보다 3.1%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조 1,777억원으로 금년 보다 2.3%가 증가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회복의 불투명으로 도세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방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증가 영향으로 전체 지방세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 증가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917억원이 감소되었음에도 전방위적인 국비확보 노력으로 금년보다 83억원 감소에 그친 1조 6,1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현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도 터널화 및 확포장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이는 예년의 지방채 발행 수준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운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1.9%인 6,386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5%가 증가 하였으며, 이는 소방직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74.7%인 2조 1,792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0.9%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 규모는 3.4%인 1,002억원으로 '02년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상환종료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7.4%가 감소되었으며,

법정경비에 포함된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지방교육세 제외) 1% 수준인 28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정 핵심과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의 3대 당면 현안과제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알펜시아 정상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위해 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 동계스포츠경기장 시설확충,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장 설계,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 등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141억원,

- 알펜시아 정상화를 위한 강원도개발공사 출자에 100억원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활동에 필요한 예산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일자리와 경제로 행복한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2,6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자활근로지원, 노인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보육돌봄 서비스, 숲가꾸기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1,174억원,

•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 일반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접경지역 지원 등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4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주도의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1,7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추진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110억원,
• 초등학생 기초회화 학습지원, 유학생 멘토링프로그램 시범운영, 소외지역 학력향상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원어민교사 지원 등에 1,6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나눔과 배려의 강원도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해 4,5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경로당 난방비·운영비 지원, 경로당 냉난방기기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송아지 입식비 지원, 노인의치 보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독립노인 전문병원 건립 등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667억원,
• 의료보호 지원,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수당 지급,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셋째아 이상 대학입학 장학금지원 등 맞춤형 복지 추진에 2,8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명품 관광문화로 아시아의 스위스 실현을 위해 1,2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림을 이용한 명상·치유의 숲 조성, 꽃이 있는 강원도 조성, 18개시군 명품길 조성,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도내 공항 활성화,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 등에 490억원,
•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강원도사 편찬, 문화 바우처 사업, 강원 문화가치정립 등 강원도의 역사문화자원 계승 발전에 7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스마트 강원 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 관광정보, 예약과 판매 등 강원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개인단말기나 전화 서비스 등 정보와 편의제공을 통한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대륙국가로 가는 물류·교통망 구축을 위해 2,5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도 확포장,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도로시설 및 대장전산화 등 도로망 지속적 확충·관리에 1,627억원,
-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화물차 휴게소 건설지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운송사업 재정지원, 운수업체 재정보전 등에 8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생명·건강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림수산업 육성을 위해 3,5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농촌관광 기반 확충, 고랭지감자 명품화, 산촌 생태마을 조성 등 농업과 산림소득 확충분야에 3,148억원,
- 어업생산기반 확충, 수산물 유통시설 조성, 인공어초 시설,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어촌경쟁력 강화에 3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행정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5,3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재해위험 지구 정비, 하천재해 예방, 소방장비 보강,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 등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등에 1,719억원,
-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쓰레기 소각시설,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등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각종 행정 서비스 강화 등에 3,60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071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4,345억원)보다 27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81억원) 보다 3억원이 증가한 84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업료 등 8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47억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 지원, 청사관리 등 경상예산에 31억원, 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사업예산에 6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1,788억원) 보다 151억원이 증가한 1,939억원으로,

국고보조금 1,551억원과 도와 시군 부담금 등 388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등 기금운영비 9억원과 의료보호비 등에 1,930억원을 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의료시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42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한 39억원 규모이며,

이는 순세계 잉여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징수교부금 1억원과 예비비에 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2,434억원) 보다 425억원이 감소된 2,009억원 규모이며, 채권매출수입 1,200억원과 용자금 회수 578억원, 순세계잉여금 231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채권원리금 상환 994억원, 지방도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 용자금으로 614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에 401억원을 편성하여 연도중 추가소요 발생시 용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총액은 금년보다 8.3%(375억원) 증가한 4,6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도비 출연금 및 매각수입금 1,454억원, 국고보조금 10억원, 용자·예치금과 예탁금 회수 수입 3,041억원, 이자수입 등 1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고유목적사업비 1,518억원, 용자금 436억원, 예치금 2,621억원, 차입금원리금상환 41억원, 기타 기본경비 등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말(3,122억원) 보다 7.3%(228억원)가 감소한 2,89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시다만,

2011년도 예산안은 「행복한 강원도」의 도정목표 실현에 최우선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 강원도형 복지모델 정립, 교육투자 확대 등 도정 핵심과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자료와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 종 국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정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으로 새해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새해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복한 강원도**」를 실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강원도 행정부지사 강 기 창